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2018. 11. 13(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2018. 11. 13(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 개 요

- 일 시 : 2018.11.13.(화) 14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 식 순

내 용	주제 및 패널
인사말	김 민 석 (민주연구원 원장) 홍 영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 사	홍 의 락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 호 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 회 : 고 한 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 제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이 항 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박 양 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 영 태 ((주)캠시스 대표이사) 이 동 기 (중견기업연구원장) 이 홍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임 윤 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 영 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종합 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연구원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 등 고용쇼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한가지로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에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부각됨에 따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견기업 육성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일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이러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해봄과 동시에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조 중견기업의 성장에 실질저금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제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국내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 오늘 정부와 학계, 경제·산업정책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대토론회를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근 한국 경제는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고용상황 악화, 내수 부진 등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성장 잠재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과거 보수정부는 부동산과 토목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열중하였고,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넘어서고, 중국의 맹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나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인 성장전략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 이제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양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문이 중견기업입니다.

- 2016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014개로 국내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고용은 117만명(5.5%), 매출은 639조원(14.5%), 수출은 851억불(17.2%)로 일자리창출 및 글로벌 진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의 중요성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 특히 중견기업은 신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의 53%, 항공드론 수출의 43%,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58%를 중견기업이 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다시 대기업으로 커가는 순차적인 성장 사다리를 조성할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월드챔프 1조 클럽’ 80개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일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축 사



**홍 의 락**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대구 복구를  
홍의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홍영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고용 한파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 여파는 우리 경제에 끊임없는 심판의 단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사태를  
비롯한 조선업 구조조정과 같은 제조업 고용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중견기업  
의 증가 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될 경우 지  
원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규제는 증가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작년의 통  
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0.008%로 2014년인  
0.012%에 비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중견기업은 국내기업 총 매출액의 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인력  
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Industry4.0 및 일본의 Society5.0과 같이 선진국들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을 위한 기술력 유지 및 강화 지원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함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제조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중견기업 성장에 견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여 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11.13.  
국회의원 홍 의 락

## 축 사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오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존 주력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절실한 때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시장변화와 산업구조 혁신이 급격히 진행중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글로벌 경쟁력이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전체 5.5%, 매출은 14.5%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중견기업은 수직적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이분법적 제도·규제 등이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 제조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조업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반을 강화하여 혁신형 제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환경과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해외시장 개척, 기술경쟁력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성장디딤돌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 추진, 업종별 공급망 분석을 통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수평적 거래네트워크 확산,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에 ‘봉산개도(峯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란 말이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면 터널도 뚫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성장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논의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강 호 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제조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 제조 미텔슈탄트(Middle Standing Enterprises)에 의한 교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독일경제를 세계적인 강자로 견인하고 총 근로자의 67%를 고용하는 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전환하여 이들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의 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견기업의 38.7%가 제조기업으로 중소기업(20.6%), 대기업(21.6%)보다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58위, 노동시장 효율성 73위, 금융시장 발전 74위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의하면 세제지원은 예비중견 및 초기중견에 집중되어 진정한 경제성과를 위해서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절실합니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R&D 및 투자에 대해서도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만들어 낸 엄청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폰에는 GPS, Siri(음성인식) 같은 국방기술 등 국가주도로 20년~30년 이상을 투자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 개발한 12가지의 신기술들이 탑재되어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R&D의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로 핵심 중견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은 무엇보다 더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서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2017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3D 프린터 등은 2019년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품과 산업의 특성상 상당한 투자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구매제도를 보면 중기 제품구매가 92.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개발제품은 4.5조원에 불과해 기술혁신으로 지속성장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는 더욱 더 근본적이고도 진정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이자수익만 20조원이 넘을 것이라 합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평균지분율은 65% 정도라고 합니다. 주주들인 외국인들에게 수조원의 배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중견기업들이 신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조치도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주신 귀빈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 발 제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이 항 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 론

1.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문	21
박 양 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2.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문	31
박 영 태 ((주)캠시스 대표이사)	
3.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39
이 동 기 (중견기업연구원장)	
4.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	47
이 흥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5.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문	55
임 윤 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문	61
조 영 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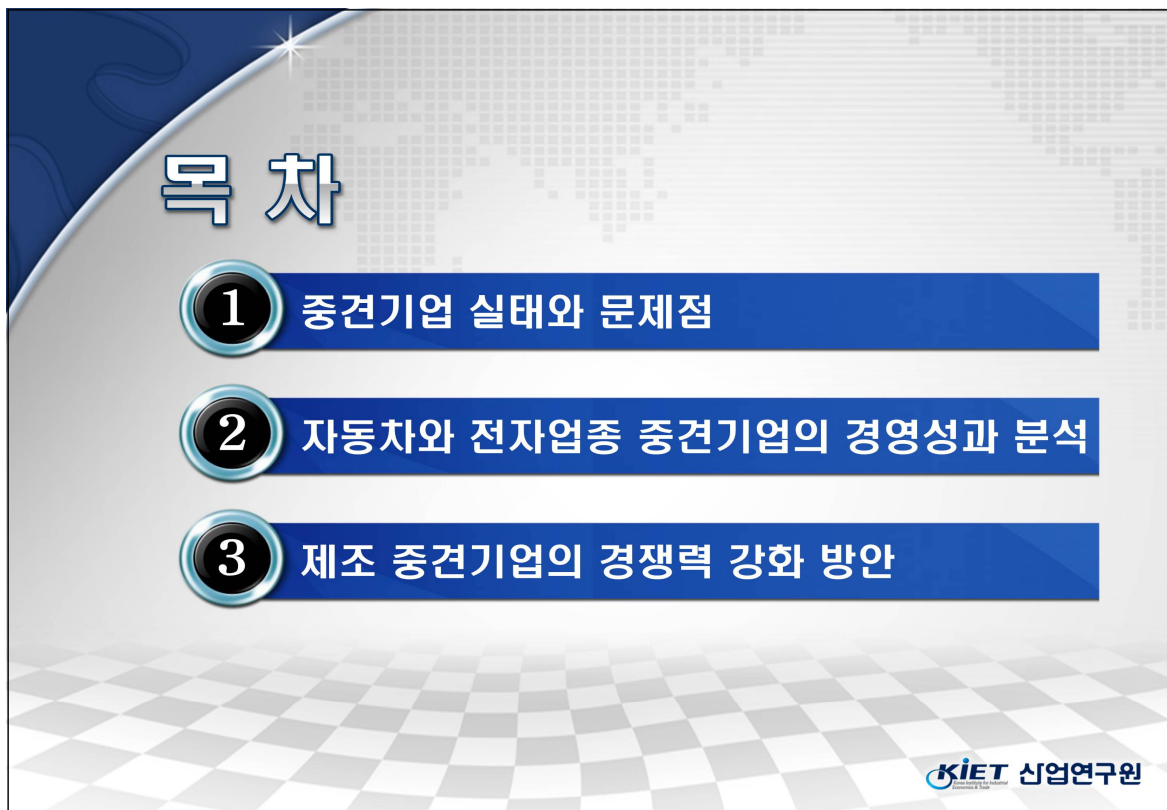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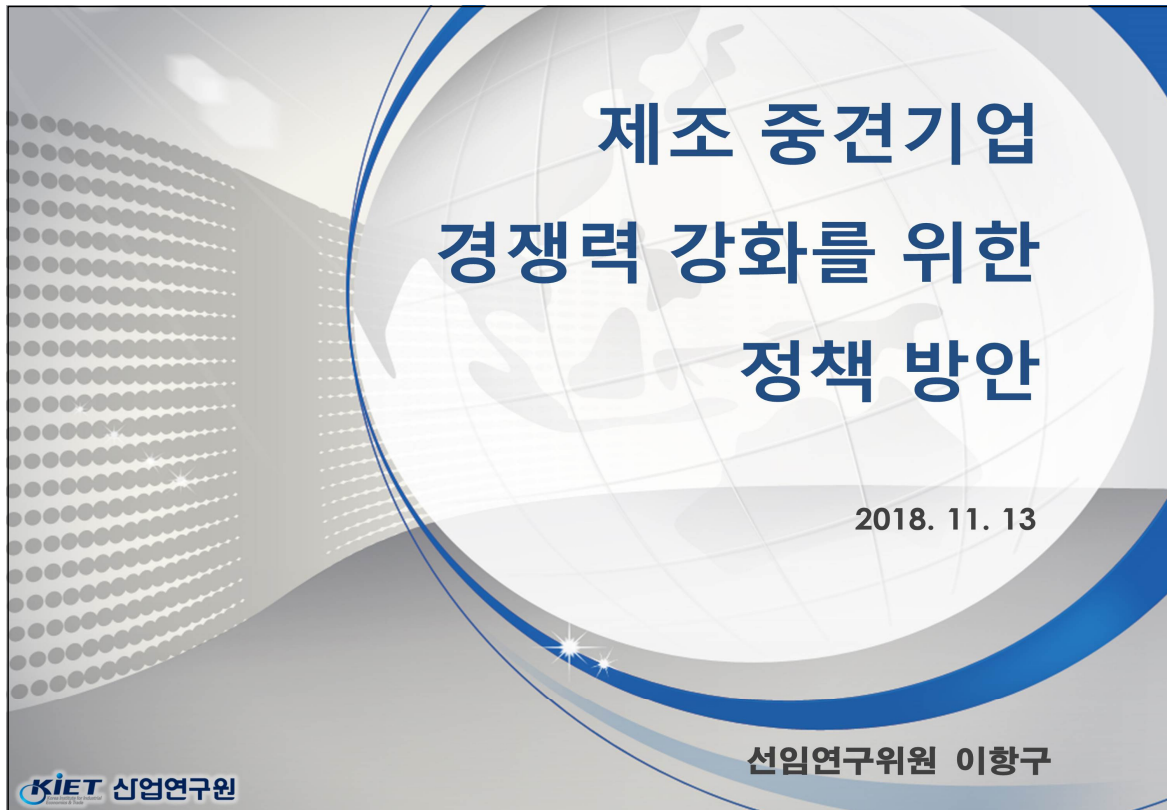
발 표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이 항 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분석대상] 2016년 기준 중견기업은 4,014개

- 2,845개 기업 경영성과 분석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성장 경로 분석

산업별 분석대상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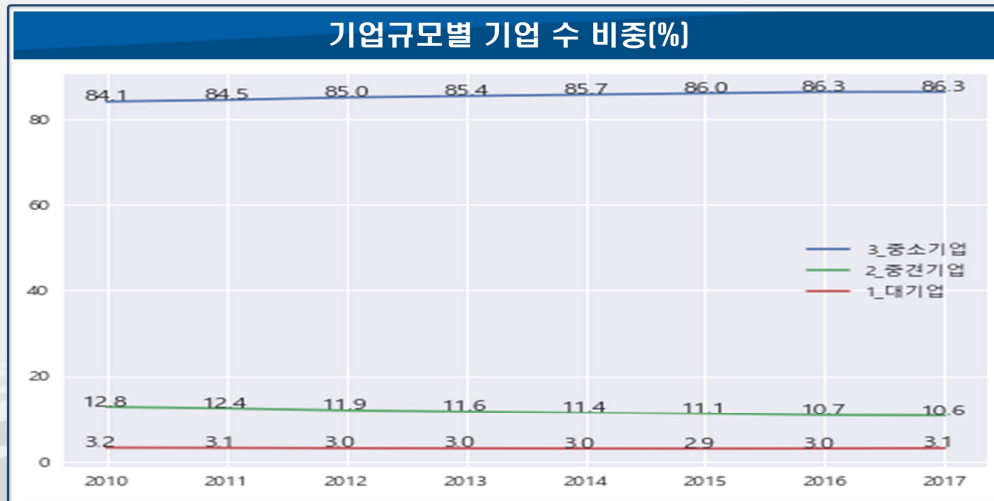
		세부 분류	기업 수
자동차		완성차	6개
		부품	197개
전자	반도체	반도체 제조업	32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7개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1개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7개
	가전	-	36개
바이오·헬스		제조업	50개
		도매업	40개
에너지		태양전지	19개
		풍력	7개
		ESS	20개
전체			452개

4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 [피터팬 신드롬인가?] 2010년~2017년 중  
대기업 수는 연평균 4.8%,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5.7% 증가
- [매출액] 전체 기업 수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증가세, **중견기업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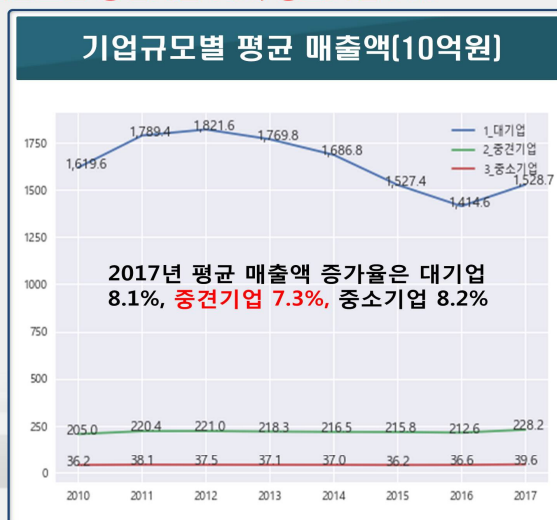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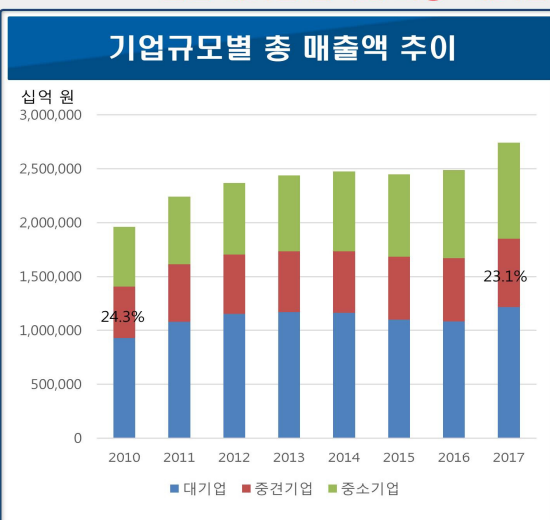


5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 대기업 평균 매출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시현했으나 2017년 반등
- 중소기업은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
-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은 대기업과 동일한 추세를 시현
- \* 높은 대기업 협력사 비중 : 대기업 의존도는 중견기업 78%, 중소기업 84%



자료 : Nice신용평가, KISVALUE

6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 전체 기업 평균 매출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다가 2017년 반등
- 제조업 중견기업의 성장세가 높은 수준 : 양적 성장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대기업	제조업	2,960	3,572	3,712	3,675	3,473	3,101	2,884	3,088	0.6
	비제조업	927	867	877	841	832	784	751	802	-2
	전체	1,620	1,789	1,822	1,770	1,687	1,527	1,415	1,529	-0.8
중견기업	제조업	223	249	255	257	254	253	253	267	2.6
	비제조업	188	193	190	184	184	183	178	195	0.5
	전체	205	220	221	218	217	216	213	228	1.5
중소기업	제조업	33	36	35	34	34	34	35	38	2
	비제조업	39	41	40	40	40	38	38	41	0.7
	전체	36	38	37	37	37	36	37	40	1.5
전체	제조업	118	134	133	131	126	120	117	128	1.2
	비제조업	97	95	93	89	87	82	79	86	-1.7
	전체	108	115	113	110	106	100	96	1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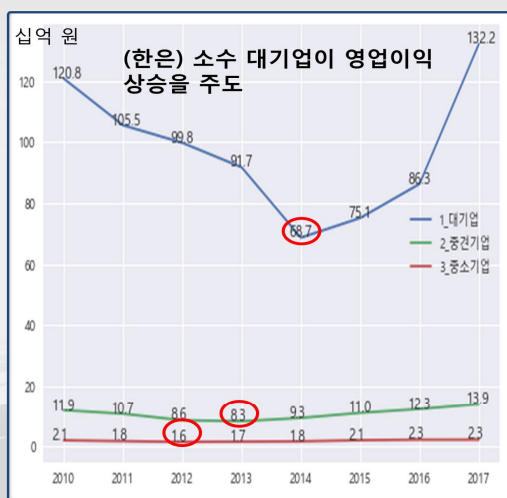
7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 2017년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고,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격차는 확대 : [ '15) 0.8%p ⇒ [ '17) 4.4%p ⇒ [ '18.2Q) 3.8%p
- 영업이익의 최저점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발생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 2010년 대비 2017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 대기업 9.4%
- 중견기업 16.8%
- 중소기업 9.5%
- (한은) 상위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하위 기업은 악화

☞ 양극화 심화 (3년간 격차 확대)

- 업종별 규모별 영업이익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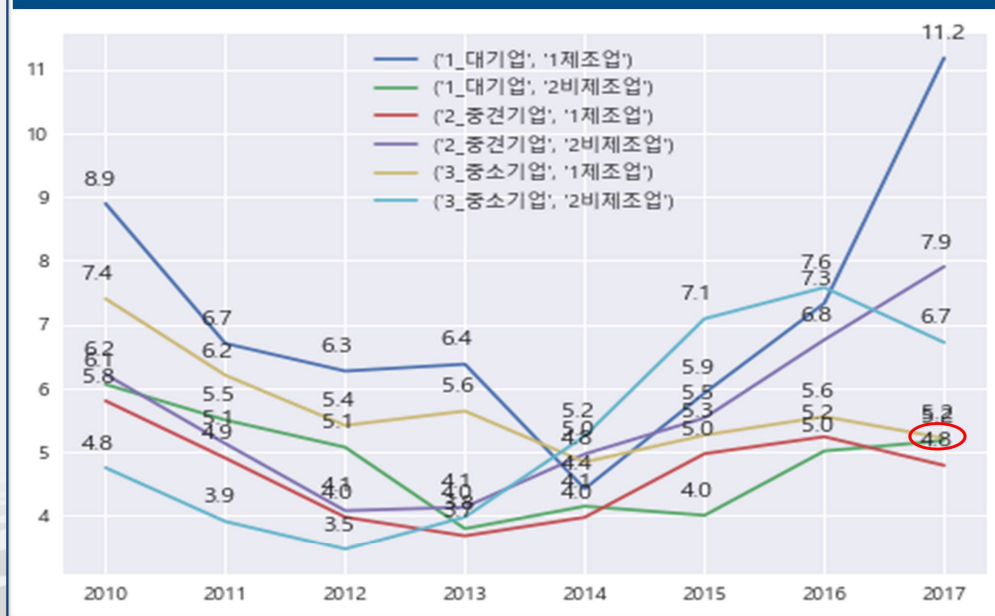
- \* 제조 대기업이 높고
- \* 비제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제조 중소기업도 양호한 반면
- 제조 중견기업이 낮은 수준
- 자금과 임금격차 ⇒ R&D 투자/인력 애로 ⇒ 저부가시장 고착 ⇒ 생산성저하

8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기업 규모별 ·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9

## 1. 중견기업 실태와 문제점

KIET 산업연구원

● [종업원 수] 기업규모별 전체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 추세
- 기업규모별 평균 종사자 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감소, 중견기업은 증가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



기업규모별 평균 종사자 수(명)



10



## 2

##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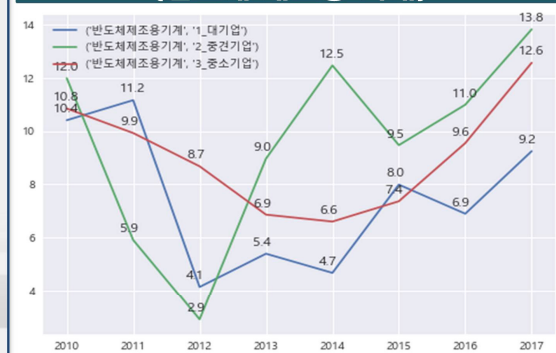
#### ● 전자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

-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 협력업체 : **자동차산업 위기론 확산**
- **반도체 호황** : 반도체 제조 중견기업은 불황 -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위협**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 중견기업은 양호**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반도체 제조]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반도체 제조용 기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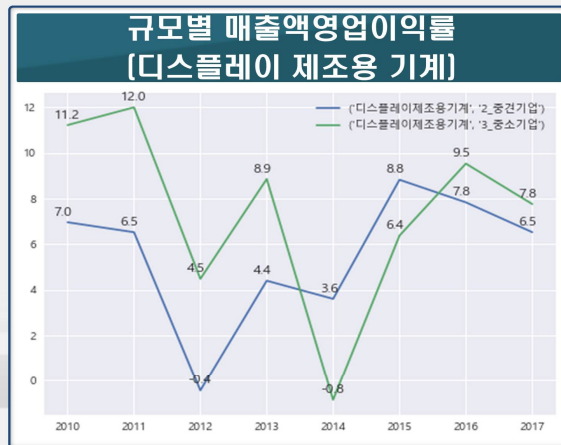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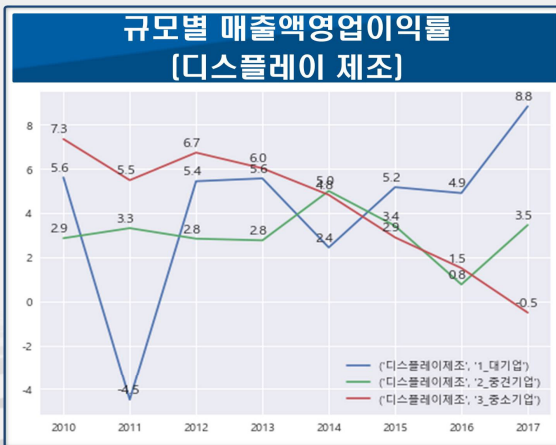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 둔화

- 디스플레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급락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중견 중소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불안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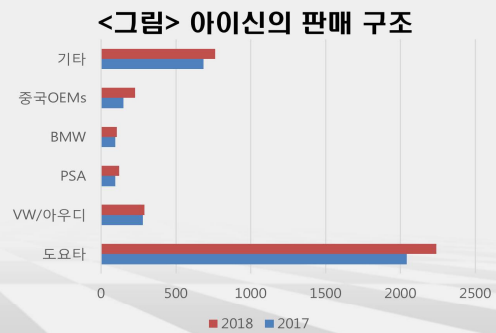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 가전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이거나 고부가가치화 필요
- 국내 11개 제조업종의 전속거래 구조는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
  -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철강
  - 에너지, 전기, 비철금속, 식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 전속거래는 국내 제조업의 양적 성장기에는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효용 저하

- \* 전속거래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중요소 생산성 저하를 유발
- \* 전속거래는 협력업체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혁신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저해
- \* 국내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환율보다는 국내 업체 해외업체의 가동률에 좌우
- \*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세계화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서 파락이 어려운 불공정 거래 유형도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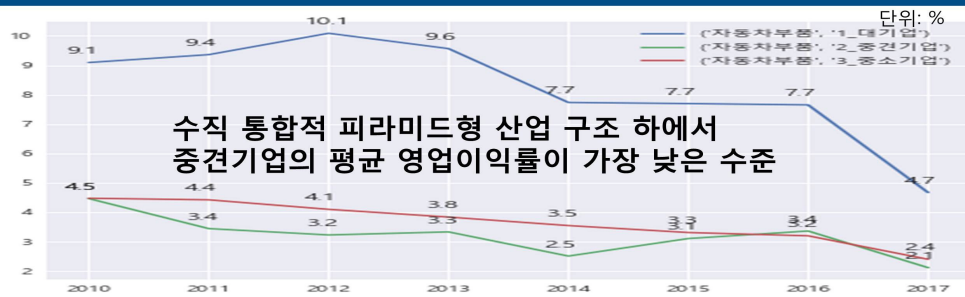
자료 : 아이신  
주 : 2018년은 추정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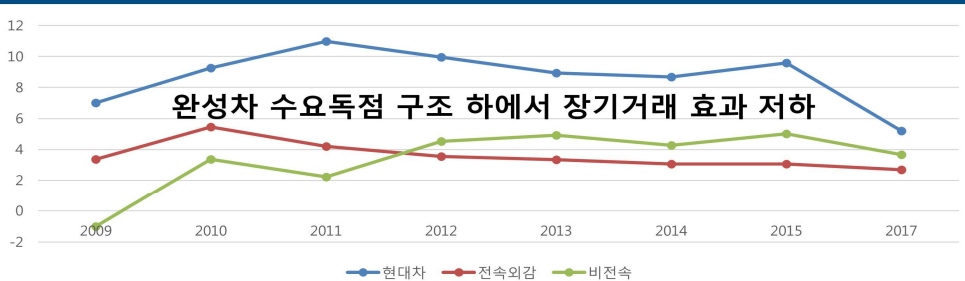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동차부품)



장기 협력업체의 경영성과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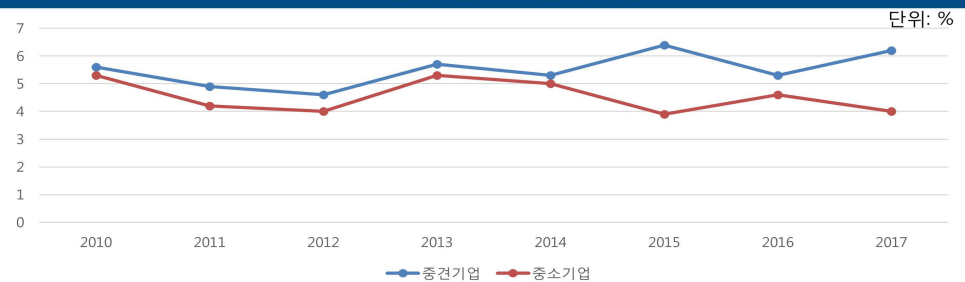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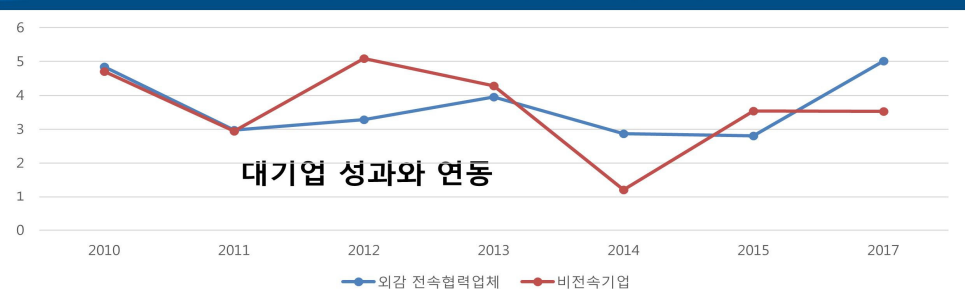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규모별 영업이익률 (가전)



장기 협력업체의 경영성과 (전자)



16

## 2. 자동차와 전자업종 중견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KIET 산업연구원

- 수직 통합적 산업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1995-2014년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미시 패널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
  -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300인 이상)와 중소 규모 사업체 (근로자 10-299인)의 **진입, 퇴출, 및 생산 지속기간의 변동**이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TFP growth)에 미치는 충격을 추정.
  - 자동차 산업 [-2.04%]은 신규 진입 SMEs가 강한 수직통합 산업구조 생산 과정에서 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적 성장 제약]**
  - IT 제품 [-0.83%] 역시 신규 진입 SMEs가 수직통합의 산업구조 내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IT 부품도 [-0.02%] 취약성을 나타냄
  - 신규 진입 **대기업(중견기업)**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 압축 성장에 기여해 온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수직 통합적 산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17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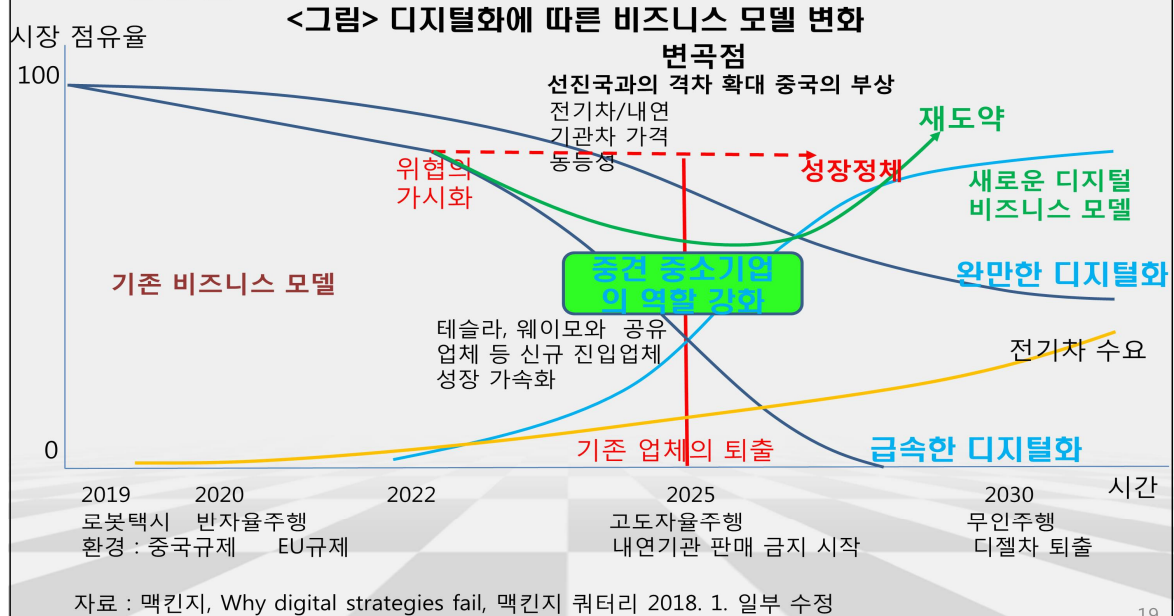
##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신성장동력] 기술 혁신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진출 필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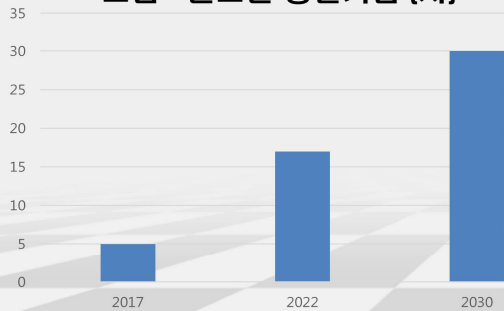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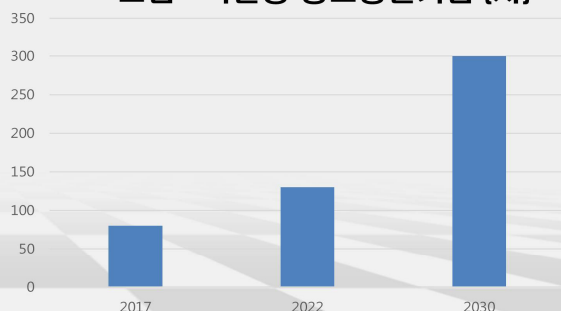
☞ [종합 지원 정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지원 정책 강화

- 독자성장 : 유기적 투자 - 투자 세액 공제 등 금융 세제 지원
- 인수합병 : 에너지, 전자, 바이오, 자동차 순(맥킨지 컨설팅) - M&A 데스크의 활성화로 전문화와 대형화 지원
- 전략적 제휴 : 국내 이업종 기업간 및 국제 제휴 확대 (전문기능연계형 협업)

**<그림> 글로벌 중견기업 (사)**



**<그림>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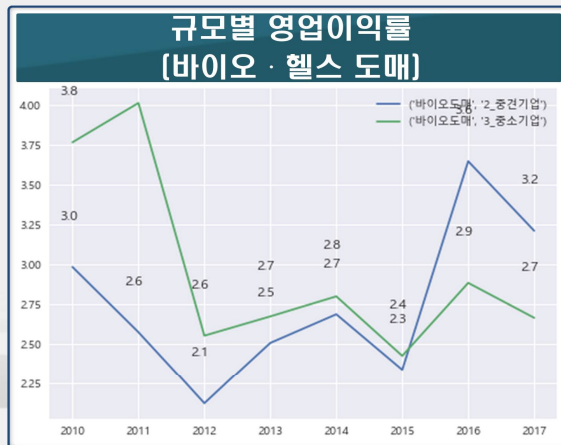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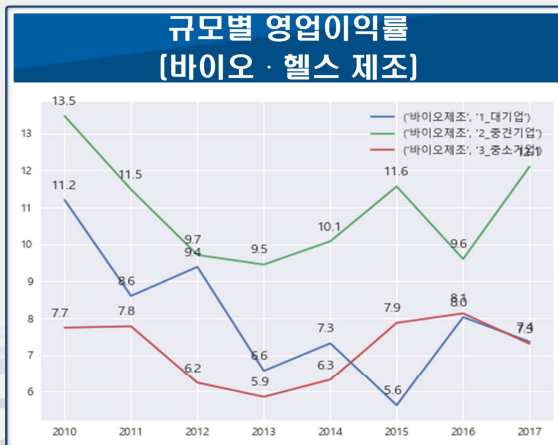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산업 구조 개편] 주력 제조업의 산업구조 및 거래구조 개편 추진과 디지털화를 통한 **구조 고도화** 추진

-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관련 **신산업 육성**

\* 신산업 중견 제조기업의 성과는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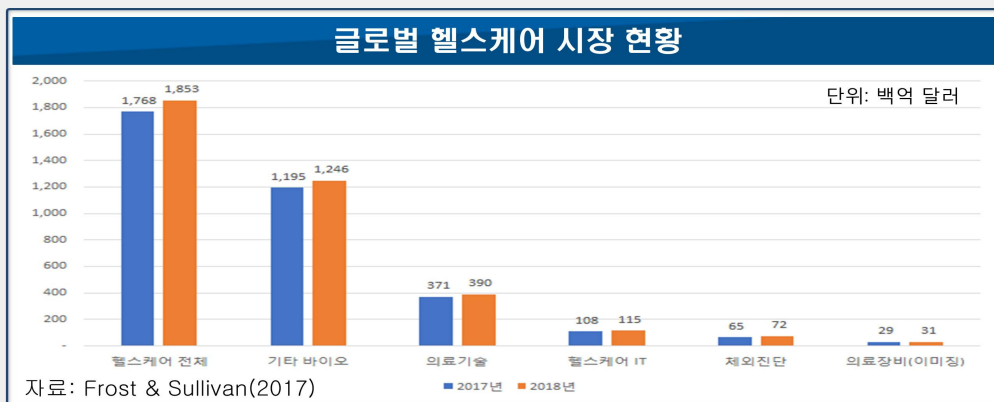


21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성장잠재력] 세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자동차산업의 4배 규모  
-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규모는 **타이어 수출 규모와 비슷**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 규모	202	214	231	253	276	302	326

자료: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7, Outlook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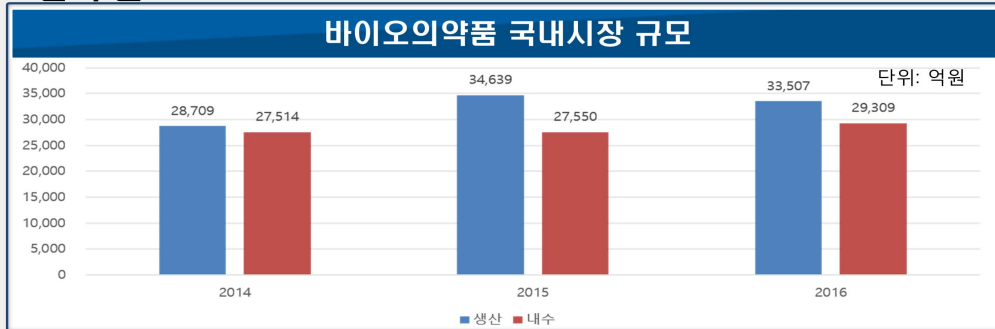
22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혁신 역량]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 미미한 수준



**우리나라 바이오 · 헬스 기업의 기업 수 및 연구개발투자**

구분	기업 수	비중(%)	연구개발투자(백만원)	연구개발투자 비중(%)
매출액 규모 1000억원 이상	52	13.5	899,137	69.3
매출액 규모 10억원~1000억원 미만	267	69.4	36,246	2.8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	66	17.1	8,258	0.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3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에너지산업 중 에너지저장시스템산업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양호

- 태양전지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
- 풍력산업 중견 중소기업의 영업은 부진한 편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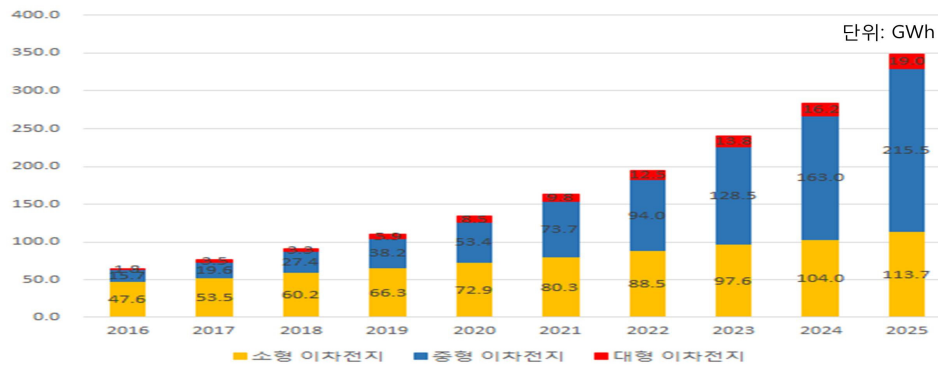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국내 대기업은 이차전지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 그러나 중국, 미국, 유럽의 추격이 가속화
- 수급기업간, 동종 업종 기업간 협력이 부진

연도별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자료: 블룸버그 자료 기초로 산업연구원 재추정

25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기본 방향] Middle-Up-Down형의 지원 체제 구축

- 업종별 공급망 분석을 통한 맞춤형 종합 지원 체제 구축
- 중견기업의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 국제 협력 촉진

국내 에너지저장시스템 공급망 분석

구성요소	원 소재	1차 가공원료	소재	제품
	리튬, 코발트	탄산리튬, 황산코발트	양극재	소형이차전지(모바일IT용)
	흑연	흑연, 저온탄소	음극재	중형이차전지(전기차배터리용)
	석유	부직포, 폴리올레핀	분리막	대형이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용)
기업구성	전량 수입에 의존	대부분 수입에 의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구성	
주요기업		국내: 후성, 포스코, 예코프로	-세계: Nichia(일), Tanaka Chem(일), Nippon(일), Hunan Shanshan(중), Beijing Easpring(중) -국내: 예코프로, LNF, 한국유미코아, GS칼텍스, 쉘텍, 일진머티리얼즈 -세계: Hitachi(일), Nippon carbon(일), BTR Energy(중) -국내: 포스코켄텍, 애경유화, GS에너지 -세계: Mitsubishi Chem(일), Guotai-huarong(중) -국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솔브레인, 후성, 엔켐, 리켐, 파나이스텍, 씨트리, 옥성화학, 천보 -세계: Asahi(일), Ube(일), Tonen(일), Celgard(미) -국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씨에스텍, 웰크론, W-Scope Korea	-세계: 파나소닉(일), CATL(중), BYD(중) -국내: LG화학, 삼성SDI, 코캠, SK이노베이션
기업구조 진단 및 평가	주요 원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 도출	1차 가공 원료 또한 전해질의 원료인 리튬염 외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주요 4대 소재의 경우 소재 국산화율이 낮으며, 국내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또한 최종 제품에 비해 낮은 편	대기업이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중이나, 중대형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소재 개발 투자확대가 필요

자료: 산업연구원

26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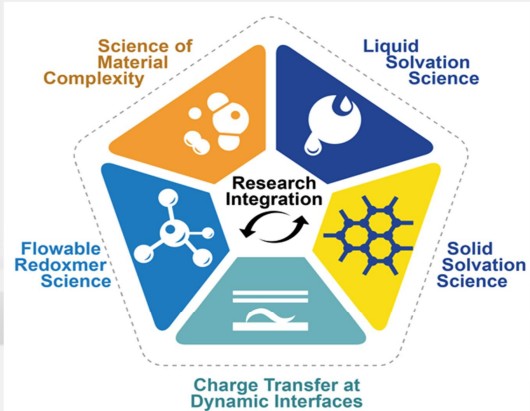
#### ● [연구개발] 중견기업 중심의 통합 연구개발 과제 발굴 지원

- 주력산업의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하고**, 연관산업 중견기업간 공동연구 개발 과제를 산학연이 도출하고 정부가 지원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9항, 37~40조의 전문기능연계형 협업

\* 신산업 기업간 협업 우선 지원

<그림> 미국 정부의 배터리 통합 연구개발



- 중견기업의 정보 부족 해소를 위한 종합 정보 지원 포털 구축

\* 국내외 기술, 기업, 산업, 정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 자동차부품 350, 전자 200개

\* 실질적인 역량 보유기업은 부품 80여개 사

\* 전자 50여개 사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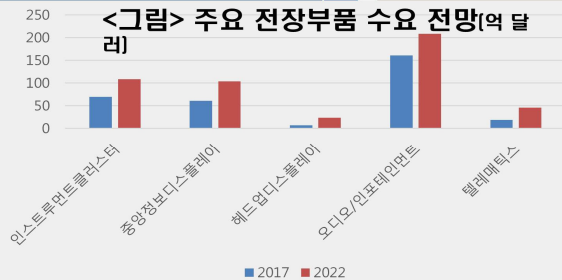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 중견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기본 시장 정보 제공

- 신기술 및 산업 수요 정보 제공



<표> 세계 가전산업 주요 품목별 생산 전망

단위 : 천 대, %

구분	품목명	2017	2019	2021	2023	CAGR
영상음향기기	LCD-TV	226,000	221,400	218,600	216,600	-0.7
	OLED-TV	1,600	4,000	9,800	13,800	43.2
	디지털카메라	10,980	9,810	8,690	7,630	-5.9
	DVD플레이어	47,200	4,200	38,900	36,000	-4.4
	비디오게임기	38,300	47,920	47,040	44,090	2.4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4,250	9,000	16,000	20,000	29.5
생활가전	전자레인지	83,660	83,000	85,000	87,000	0.7
	로에어컨	167,500	135,000	133,000	144,000	-2.5
	냉장고	110,000	115,000	121,000	127,000	2.4
	세탁기	110,520	115,040	119,870	127,000	2.3
	청소기	72,770	71,320	69,900	68,510	-1.0

자료 : 월드와이드 일렉트로닉스 시장조사(2017~2023), 한국전자산업연구원, 2019년 10월 24일

28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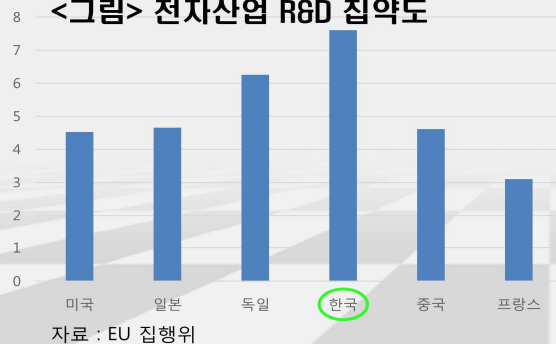
#### ☹ [혁신역량 강화] 세계 2500대 연구 개발 투자 기업 수 감소세

- '14년 80개 ⇒ '16년 70개
- 자동차산업의 전기동력 자율주행화에 따라 기업간 협업을 통한 산업간 융합은 필수
- Best Practice의 창출과 확산

<그림> 소프트웨어산업 R&D 집약도



<그림> 전자산업 R&D 집약도



자료 : EU 집행위

<그림> 자동차부품산업 R&D 집약도



29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본사 입지(지방)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전문인력 부족
- 디지털화 관련 인력도 부족 : 재교육 훈련
- 신규 채용과 일정 기간 국내외 전문가 비상근 자문에 대한 지원 검토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
  - \* 초기 중견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40% 지원 [ '18~, 연 50명]
  - \* 특허청 IP-R&D 지원 사업과 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NTB) 관련 지원 확대

<그림> IT 전문 인력 1% 증가의 매출 증대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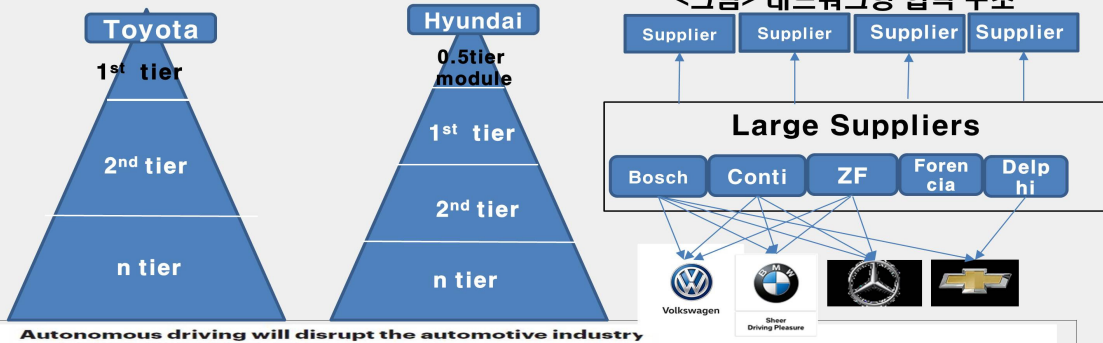
자료 : James Bessen, Information Technology & Industry Concentration

30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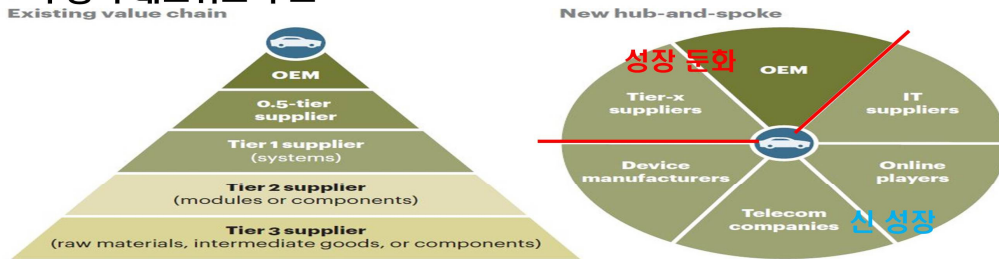
KIET 산업연구원

#### 수직통합적 산업구조와 전속거래 구조 개선



Autonomous driving will disrupt the automotive industry

####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Source: A.T. Kearney analysis

31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연구원

####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식 개선 : 공정거래 정착

- HBR이 선정한 2018년 세계 100대 CEO 전무

<표> 업종별 국가별 세계 100대 CEO 등재 수

업종	수	업종	수	국가	수	국가	수
자동차	3	에너지	2	아르헨티나	1	덴마크	1
정보기술	22	헬스케어	11	호주	1	프랑스	9
통신	2	유틸리티	2	벨기에	4	독일	3
소비자서비스	5	부동산	7	브라질	1	홍콩	3
소재	7	소매	8	캐나다	4	이태리	2
소비재	8	금융	11	칠레	1	일본	5
산업재	9	운송	3	중국	1	멕시코	3
				네덜란드	1	대만	2
				스페인	4	영국	3
				스웨덴	1	미국	49
				스위스	1		

자료 : HBR, The best-Performing CEOs in the World 2018, 2018 11/12

32

### 3.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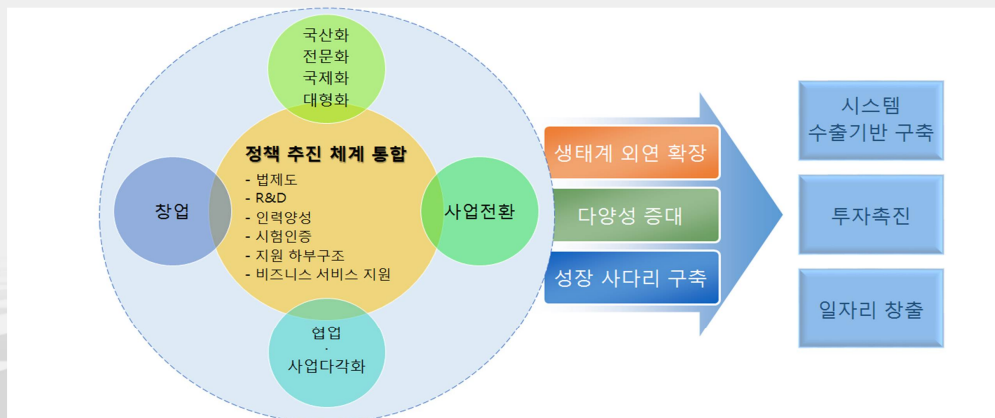
KIET 산업연구원

중견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 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부처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 지원 체제 구축

\* 부처 산하 연구소와 중소기업 지원 센터의 개방 확대 및 연계 지원

<그림> 정부 지원 체계와 기대 효과



33

감사합니다.

KIET 산업연구원

34



토 론 1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박 양 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박 양 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1. 제조 중견기업 현황

- 2016년 중견기업은 4,014개로 전체 기업수의 0.64%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14.46%, 수출액의 17.22%를 차지

2016년 기준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주요 지표

(단위 : 개, 조원, %)

구 분	기업수	매출	수출(억불)	자산	부채	영업이익
대기업 (비중)	2,115 (0.34)	2,127 (48.13)	3,171 (64.15)	6,495 (71.37)	4,868 (74.82)	131 (55.74)
중견기업 (비중)	4,014 (0.64)	639 (14.46)	851 (17.22)	772 (8.48)	381 (5.86)	37 (15.74)
중소기업 (비중)	621,336 (99.02)	1,653 (37.41)	921 (18.63)	1,834 (20.15)	1,257 (19.32)	67 (28.51)
계	627,465	4,419	4,943	9,101	6,506	235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제조업 영위 기업 약 13만개 중 98.5%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1.2%(1,552개사), 대기업은 0.4%(457개사)에 불과
- 업종별 제조 중견기업 수는 자동차 트레일러 210개사, 전자부품 156개사, 1차 금속 155개사, 화학제품 141개사, 기계장비 137개사, 식료품 131개사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전체 기업수 대비 중견기업 비중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8.8%, 1차 금속 3.7%, 자동차 트레일러 3.7% 순이며,
    - 중견기업 비중이 낮은 업종은 담배제조 0.0%, 인쇄 및 기록매체·기타제품 0.2%, 섬유제품·목재 및 나무제품 0.5%, 금속가공제품·의료정밀 광학기기 0.6%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백억원, %)

	기업수				매출액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제조업	129,772	457 (0.4)	1,552 (1.2)	127,763 (98.5)	167,557	77,790 (46.4)	35,445 (21.2)	54,323 (32.4)
식료품(C10)	9,725	44 (0.5)	131 (1.3)	9,550 (98.2)	9,087	1,936 (21.3)	3,636 (40.0)	3,515 (38.7)
음료(C11)	636	13 (2.0)	21 (3.3)	602 (94.7)	1,034	569 (55.0)	310 (30.0)	155 (15.0)
담배(C12)	9	5 (55.6)	0 (0)	4 (44.4)	420	420 (100.0)	0 (0.0)	0 (0.0)
섬유제품(C13)	5,438	3 (0.1)	27 (0.5)	5,408 (99.4)	2,520	84 (3.3)	355 (14.1)	2,082 (82.6)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3,731	8 (0.2)	45 (1.2)	3,678 (98.6)	3,623	197 (5.4)	1,455 (40.2)	1,971 (54.4)
가죽, 가방, 신발(C15)	1,401	2 (0.1)	15 (1.1)	1,384 (98.8)	1,011	33 (3.3)	380 (37.6)	598 (59.1)
목재, 나무(C16)	1,971	1 (0.1)	10 (0.5)	1,960 (99.4)	704	2 (0.3)	157 (22.2)	545 (77.5)
펄프, 종이, 종이제품(C17)	2,648	2 (0.1)	44 (1.7)	2,602 (98.3)	2,281	152 (6.7)	969 (42.5)	1,160 (50.9)
인쇄 및 기록매체(C18)	2,919	1 (0.0)	7 (0.2)	2,911 (99.7)	748	46 (6.2)	54 (7.2)	648 (86.6)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252	14 (5.6)	5 (2.0)	233 (92.5)	8,629	8,396 (97.3)	92 (1.1)	141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6,939	90 (1.3)	141 (2.0)	6,708 (96.7)	16,528	9,427 (57.0)	4,001 (24.2)	3,099 (18.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C21)	774	14 (1.8)	68 (8.8)	692 (89.4)	2,377	249 (10.5)	1,468 (61.8)	660 (27.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C22)	8,005	14 (0.2)	66 (0.8)	7,925 (99.0)	6,453	713 (11.0)	1,427 (22.1)	4,312 (66.8)
비금속광물(C23)	5,074	18 (0.4)	72 (1.4)	4,984 (98.2)	4,433	554 (12.5)	1,570 (35.4)	2,309 (52.1)
1차금속(C24)	4,006	25 (0.6)	155 (3.9)	3,826 (95.5)	12,910	5,853 (45.3)	4,074 (31.6)	2,982 (23.1)
금속가공제품(C25)	15,332	13 (0.1)	87 (0.6)	15,232 (99.3)	7,324	606 (8.3)	1,268 (17.3)	5,450 (7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11,422	53 (0.5)	156 (1.4)	11,213 (98.2)	32,524	24,828 (76.3)	3,162 (9.7)	4,534 (1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5,269	12 (0.2)	32 (0.6)	5,225 (99.2)	2,659	325 (12.2)	454 (17.1)	1,880 (70.7)
전기장비(C28)	10,002	27 (0.3)	76 (0.8)	9,899 (99.0)	7,732	2,359 (30.5)	1,779 (23.0)	3,594 (46.5)



	기업수				매출액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기타기계장비(C29)	18,670	33 (0.2)	137 (0.7)	18,500 (99.1)	10,687	1,380 (12.9)	2,224 (20.8)	7,084 (66.3)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5,725	41 (0.7)	210 (3.7)	5,474 (95.6)	23,689	13,761 (58.1)	5,135 (21.7)	4,793 (20.2)
기타 운송장비(C31)	3,109	16 (0.5)	21 (0.7)	3,072 (98.8)	7,463	5,547 (74.3)	801 (10.7)	1,114 (14.9)
가구(C32)	2,291	4 (0.2)	15 (0.7)	2,272 (99.2)	1,599	184 (11.5)	616 (38.5)	799 (50.0)
기타제품(C33)	4,424	4 (0.1)	11 (0.2)	4,409 (99.7)	1,124	169 (15.0)	59 (5.3)	896 (79.7)

자료: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제조 중견기업의 77.8%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1조원 이상 기업은 3.5%(50개사)에 불과
- 매출규모별 분포는 1천억원 미만이 36.2%, 1천억원~2천억원 미만이 27.0%, 2천억원~3천억원 14.6%, 3천억원~5천억원 미만 11.8%, 5천억원~1조원 미만 6.9%, 1조원 이상 3.5% 순

제조 중견기업 매출 규모별 분포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3천억원 미만	3천억원~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계
511	381	206	166	98	50	1,412
(36.2)	(27.0)	(14.6)	(11.8)	(6.9)	(3.5)	(100.0)

\* 제조 중견기업 1,412개 분석 결과

## 2.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으로 보임. 특히 수직통합적 산업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이 핵심 역량을 강화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

□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필요

-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세계경쟁력지수는 137개 국가 중 26위 수준
- 분야별로 거시경제환경 2위, 인프라 8위로 상위권이지만, 기업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규제의 부담 등 제도(institution)부문은 58위, 노동시장 효율성 73위, 금융시장 발전 74위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
- 우리 경제의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문 개혁 필요

세계경쟁력지수 2017-2018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6	5.07	2	5.85	9	5.49	5	5.65	8	5.51	22	5.18	27	5.00
제도	58	4.04	20	5.33	17	5.41	21	5.30	12	5.52	31	4.84	41	4.42
인프라	8	6.08	9	6.01	4	6.34	10	5.96	11	5.96	7	6.10	46	4.66
거시경제 환경	2	6.63	83	4.51	93	4.30	12	6.10	68	4.65	63	4.82	17	6.00
보건 및 초등교육	28	6.34	29	6.33	7	6.60	13	6.52	17	6.47	24	6.39	40	6.21
고등교육 및 훈련	25	5.34	3	6.12	23	5.38	15	5.70	20	5.48	22	5.41	47	4.78
상품시장 효율성	24	4.97	7	5.47	13	5.24	11	5.27	10	5.29	36	4.68	46	4.55
노동시장 효율성	73	4.18	3	5.64	22	4.78	14	5.03	6	5.44	56	4.35	38	4.55
금융시장 발전	74	3.90	2	5.73	20	4.89	12	5.03	13	5.03	33	4.53	48	4.23
기술수용 적극성	29	5.65	6	6.23	15	6.01	8	6.17	4	6.33	21	5.90	73	4.18
시장규모	13	5.53	2	6.86	4	6.07	5	6.00	7	5.75	8	5.75	1	7.00
기업활동 성숙도	26	4.91	2	5.77	3	5.73	5	5.65	7	5.58	16	5.25	33	4.51
혁신	18	4.78	2	5.82	8	5.37	5	5.65	12	5.09	17	4.89	28	4.14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견기업 육성정책 시행(13.9) 이후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구간 설정을 통해 세제지원 중이며 대부분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중견기업 범위	세제지원 항목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보세구역 특례,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R&D설비투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술취득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고용충대세제, 상생결제지급금액 세액공제,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후 복직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 세제지원에도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

## 기업규모별 법인세 과세현황

	실효세율	공제감면	소득공제	비과세
상출 대기업	17.1%	4.7조원	3,962억원	135억원
기타 대기업	19.3%	1.0조원	36,588억원	5,368억원
중견기업	17.5%	0.5조원	-	2억원
중소기업	12.8%	2.6조원	236억원	609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 최근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 축소

세제지원 항목	공제율(시행일)
R&D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5% → 3%('16.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5% → 3%('17.1.1)
환경보전시설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5% → 3%('18.1.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7% → 3%('19.1.1)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18년말 일몰)

- R&D 및 투자 등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세제지원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 □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개선 필요

-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으로 19대 기술\*을 선정하고, 금융위·산업부는 9개 분야의 신성장 산업 품목\*\*을 지정 육성 추진 중

\*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고속 수직착륙 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길감형콘텐츠,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중

\* (2017년 지정) 드론, (2018년 지정 추진 중) 에너지저장장치, 3D 프린터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이를 지적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경우 '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를, 상위 2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90.2%를 차지하는 등 소수 기업에 제도 혜택이 집중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16.10월)
- 또한 현행 공공구매제도는 중기 제품구매가 92.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제품은 4.5조원에 불과해 기술혁신 유도하는데 한계

#### 년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총구매액	119.2	116.6	123.4
중기제품 구매액	85.5	86.1	92.2
기술개발제품	3.1	3.7	4.5
여성기업제품	7.1	8.3	9.9
장애인기업제품	1.1	1.3	1.5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

- 신성장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술혁신형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기제품구매는 축소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대폭 늘리고 중견기업도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에 중견기업 지원 확대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이 있음
  - 스마트공장구축과,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은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생산현장 디지털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국축 기업대상, 솔루션 및 연동설비 구축지원	중소·중견	최대 0.5억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중소	최대 15억원
	글로벌화	스마트 공장솔루션 구축지원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	최대 1.8억원
로봇활용 중소제조과정 혁신지원		중소제조기업의 생산공정에 로봇도입 지원	중소·중견	최대 3억원

##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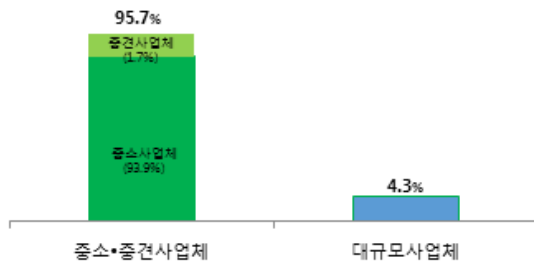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2%(36,271)으로 나타남

\* 부족인원(명): ('13년)37,391 ('14년)36,383 ('15년)36,933 ('16년)36,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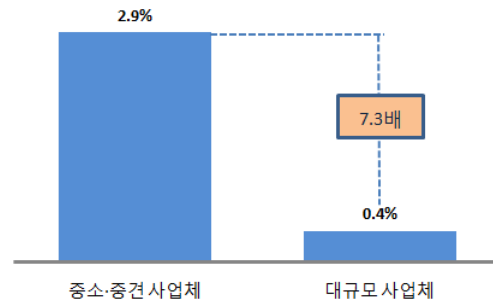
부족률(%):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13년)2.4 ('14년)2.3 ('15년)2.3 ('16년)2.2

- 전체 부족 인원 중 중소·중견규모(5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7%이며 중소·중견규모 사업체 부족률(2.9%)은 대규모 사업체의 부족률(0.4%)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남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원 비중〉



〈사업체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격차〉



- 또한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직 이직률은 1년 이내 12.1%, 3년 이내 19.0%, 5년 이내 10.2%로 조사(산업기술진흥원, '15년)

##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필요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음(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가능)

\*수도권 소재 제조 중견기업은 767개사로 제조 중견기업의 49.4%를 차지

-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공장 신설로 규제하여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
-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박 영 태

(주)캠시스 대표이사





## 제조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자료)

2018년 11월 13일

(주)캠시스

## 제조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 ■ 배경

- 세계 각국들은 중견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중.
  - ✓ [선진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과 미래 환경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중견기업 정책 추진
  - ✓ [신흥국] (중국) '중국 제조 2025' 전략 수립/추진, (인도) '모디노믹스'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베트남) 낮은 인건비를 강점으로 제조업 기반 확대, (태국) '타일랜드 4.0' 선언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동남아 거점 의지 표명.
- 해외 경쟁업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국내 중견기업의 시장마저도 잠식하고 있음.
  - ✓ '15년 국가 제조업 경쟁력지수 비교에서 한국(5위)은 중국(3위)에 추월(한국경제연구원)
  - ✓ 중국의 S社의 경우, '18.1H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납품 개시
- 국내 제조중견기업이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현행 정부의 기업지원

- 중소기업청 등 21개 기관 총 94건의 정부지원 시책 존재('15년 기준)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할 부문별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음.
  - ✓ 투자부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정부 R&D 지원사업
  - ✓ 조세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 해외시장 개척: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 ■ 정부지원 주요시책의 한계점

-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여 중견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잔류유인 제공

- ✓ '중소→중견' 진입시 지원이 배제되는 법령 총 202건('16.5월, 중견기업연구원)
- ✓ 기업 성장에 따른 주요 규제

분 야	규 제 내 용
입찰참여 제한규제	-대상 : 종업원 300인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자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제한 (20억 미만 사업)
지주회사 관련규제	-대상 : 자산 1천억 이상 기업 -자회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 강제전환
상속세 증과세	-지분율 50% 이상(미만) 30%(20%) 할증과세 *중소기업의 경우 15%(10%) 할증과세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2009년 7월.

-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미만)의 8%가 회귀의사(중견련, '17)
- (스마트공장지원)제조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 생산공장을 두어, 국내에 공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수이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금액 대비 적은 금액 지원
  - ✓ (지원규모)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1억 지원
  - ✓ (투자금액 예시) ERP구축: 20억원 / MES구축: 10억원 / PLM구축: 8억원
- (정부R&D지원)중소기업 사업예산대비 중견기업 사업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편성된 R&D과제도 정부주도로 선정되어 중견기업의 R&D 니즈와 온도차 존재. 또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감부담금 과다
  - ✓ (예산규모('17)) 중소기업(중기부) 11조원 vs 중견기업(산업부) 7백억원(중견기업 정책 혁신 워크숍, '18.2.5)
  - ✓ (R&D과제 부담금 규모) 중견기업 60% vs 중소기업 32.5%
- (조세지원)초기 중견기업 중심(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목적의 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급감
  - ✓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감소(중소 25% vs 당사 8%)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 6% vs 당사 1%)
  - ✓ 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 10% vs 당사 제외)
  -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이 내국인 한정 → 해외생산법인과 거래시 지원 제외

- (해외시장진출 지원)대기업 전속거래 영향력 탈피를 위하여 글로벌 판로개척이 필요하지만, ‘해외시장진출 지원’ 관련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활용 불가 (중소기업한정)
- (벤처/중소기업 M&A)중견기업이 첨단 기술확보 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M&A 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면 피투자회사는 기업규모 또는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됨. 이는, 모회사(중견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모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경우 피투자회사는 첨단 기술 개발능력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성장 기회를 상실.
  - ✓ 중견기업 분류시 벤처인증 불가 정부의 벤처지원펀드 지원대상 배제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절차가 중견기업 기준으로 복잡해지고, 아예 기술보증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 ■ 건의사항

- (공통사항)초기 중견기업 중심(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지원에서 성장단계별, 유형별, 산업별 등을 고려한 중견기업 지원시책 필요하며, 중견기업 지원시 기업의 투자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액 책정이 필요
  - ✓ 매출액 기준 세분화: 3천억원 미만, 3천억원~5천억원 미만, 5천억원 ~ 1조 등 다양한 구간으로 분류
  - ✓ 수출주도/내수위주, 독자기업/협력사, 제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기업특성을 반영
- (스마트공장지원)기업 특성상 생산기지가 해외에 있는 중견기업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
- (정부 R&D 지원)중견기업을 위한 R&D 과제 예산 확대하고, 기업에 필요한 R&D 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주도의 자유공모 과제 수 및 과제예산의 규모확대가 필요함. 또한, 민간부담금 수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선행개발에 추가재원 투자가 용이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함.
- (해외시장진출 지원)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 (벤처/중소기업M&A)근본적으로는 중견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닌 피투자기업의 실제 규모 등에 따른 기업분류가 필요하며,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벤처/중소기업의 벤처/중소기업 지위가 7년간 유지\*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中소지위 7년간 유지(아시아경제 기사, '17.12.28)
- 기타사항
  - ✓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간의 이전가격, 외화, 관세 등 종합 인프라 지원
  - ✓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 해외공장에 대한 주재원 인턴 등 지원 강화(글로벌 취업 혜택)



토 론 3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이 동 기  
중견기업연구원장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018.11.13**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장**  
**중견기업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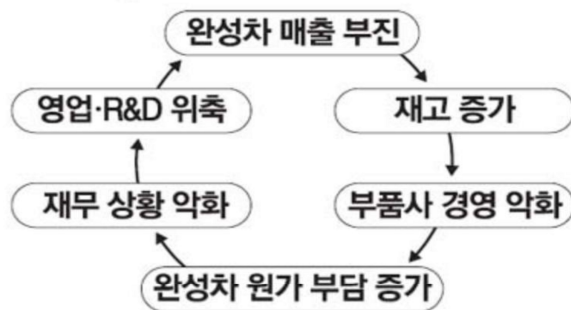
## **목 차**

- 1. 들어가며**
- 2. 제조 중견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 3.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부품사 손도 못쓰고 줄폐업...車쇼크 확산



### 자동차 산업 악순환 시나리오



"올들어 매출 30%나 줄어"  
부품업체들 곳곳서 비명

영업이익률 5년새 반토막  
부품생태계까지 붕괴 조짐

출처: 매일경제 (2018.10.29) 3

## 1. 들어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군이 커져야  
산업생태계 전체가 강해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 2. 제조 중견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 제조산업 전반의 문제

-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험의 증대
- 중국의 추월과 경쟁력의 약화
-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정책변화 대응 어려움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완성품 대기업 및 중견·중소 협력사(산업생태계)  
매출부진 및 경영악화

5

## 2. 제조 중견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 중견기업의 문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글로벌역량과 혁신이 미흡하다.

지역적 편중도가 높다.

6

## 2. 제조 중견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정책 문제

### 이분법적 기업정책 한계

-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보호의 큰 틀 하에서 중견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혁신적이지 못한 중견기업 정책

-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정책 부재

7

## 3.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8

## 과감한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  
기능적 지원 → 전략적 육성 (비즈니스모델 혁신 지원)
- 산업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중견기업정책 추진:  
표준화된 지원정책 → 산업생태계 재편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정책추진

9

## 구체적 정책 방안

### 거래선 다변화 중견기업 육성

- 국내대기업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수직적, 폐쇄적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주로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와 이를 위한 독자적 R&D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종합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지원하는 정책필요
- 국내외 투자은행(IB)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필요

10

## 구체적 정책 방안

### 중견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 중견기업과 인근지역 대학 또는 관련 대학과 중장기적 R&D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

### 스마트 제조 중견기업 육성

-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국내에서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하는 기업이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 제조공장을 다수 인수하여 스마트 제조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경우 일자리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1

## 구체적 정책 방안

### 지역선도 중견기업 육성

-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선도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지자체 역할 확대)

### 일자리 창출 우수 중견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하고 향후 현재의 일자리(임금총액 기준)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중견 제조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부여 확대

12

토 론 4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

이 흥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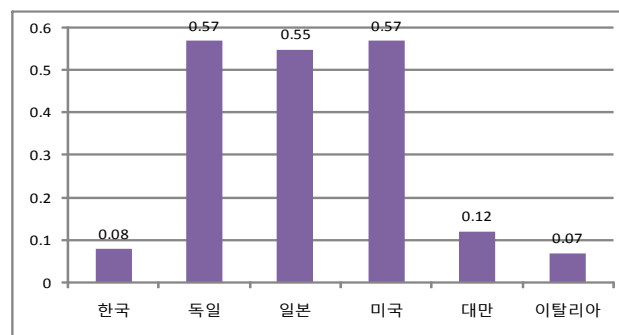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

이 홍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 1. 지상과제: 쌍봉낙타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한국은 유독 중견기업이 약한 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중소기업이라는 봉우리와 대기업이라는 봉우리는 잘 발달해 있지만 중견기업의 존재는 미약한 쌍봉낙타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평균적 중견기업이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999인 기업비중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이다.

300~999인 기업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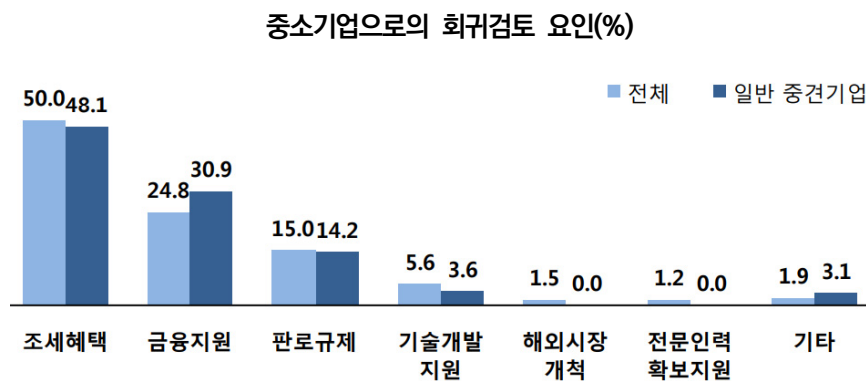


### 2. 중견기업 수 늘리기

쌍봉낙타형 산업구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중견기업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여를 국가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국가 경제생태계의 강건성, 생산성, 혁신성 및 국가사회 기여도에서 매우 높은 기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군이다(이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나 생략하기로 함). 이들의 기여를 국가가 누리지 못하면 국가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절대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 1) 조세법 장애제거

다음의 그림은 20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의 결과 중 하나다. 이 자료를 보면 조사된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곳은 전체의 경우 6.9%, 일반 중견기업은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고 애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으로 내려앉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중견기업이 돼봐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굳이 중견기업이 되어야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중 조세에 대한 불이익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나 생략하기로 함).



자료원: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조세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전면적 차별폐지:** 가능하면 중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중소기업과의 차별을 두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차별폐지:** 전면적 차별폐지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기간을 2-3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적어도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견기업이 되는 것이 별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중견기업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R&D관련 차별폐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중 R&D관련 제약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견기업의 최대 약점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R&D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R&D투자에 대한 별까지 주는 것은 일종의 중견기업 죽이기가 된다. 특히 벤처천역기업과 같은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 2) 기업결합

중소벤처기업 간 기업결합을 통해 중견기업의 수를 압축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벤처육성은 스타트업 정책이었다. 신생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데에 주력해왔다. 신생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이 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압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스케일업(scale-up) 방식:**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결합하여 기업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스케일업 방식을 응용하는 것이다. 스케일업이란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을 선정하여 규모성장도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응용하면 성장 속도가 빠른 여러 벤처 기업들을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벤처결합으로 일정한 규모에 오른 기업들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스코프업(scope-up) 방식:** 서로 특징을 달리 하는 벤처기업들이 결합하여 규모가 있는 새로운 기업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약점은 성장에 필요한 기능과 역량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역량은 있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생산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R&D역량 + 마케팅 역량 + 생산역량 + 시장개척 역량들을 합쳐 규모가 있는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협업(collaboration-up) 방식:** 본래의 기업은 그대로 둔 채 여러 중소벤처들이 투자하여 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은 기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체들에게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것이 협업방식이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3. 중견기업 육성방식 개선하기

한국의 중견기업 육성방식은 중견기업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월드클래스 300에 선발된 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R&D자금 지원이나 해외시장 개척 관련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지원은 일정 수준에 오른 기업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중견기업 육성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할 것: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정도의 지원을 할 것
  - 제도완화형 지원을 할 것: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적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지원을 할 것
- 위의 원칙에 의한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전문 지원시스템 활용지원:** 필요할 경우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 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사정이나 기술을 잘 아는 전문 네트워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 네트워크 기관(ENP: Expert Network Platfor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한 예가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거스너만 그룹(Gerson Lehman Group)이다. 1998년 뉴욕에 설립된 기관으로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영, 산업, 과학, 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외 네트워크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을 중견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부 비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한 방법이 된다. 반드시 거스너만그룹일 필요는 없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외의 전문 플랫폼 기관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 유력기업의 지분취득 지원:** 해외시장 진출과 유지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유력 기업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해외 유력한 기업들이 한국의 중견기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 방식은 일본 정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유력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 기업들의 지분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일견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권을 저해 받지 않는 정도의 지분은 해외 유력기업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R&D지원방식 변경:** R&D지원에 대한 방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가 R&D예산 범위에서 하향식 또는 상향식으로 지원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응모/지

원→선발평가→결과평가라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R&D니즈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첨단 기술이나 고도의 기술과 무관할 때도 많다. 응모/지원→선발평가 방식은 경쟁에 의해 소수의 기업들에게 R&D지원을 하는 것임으로 상당수준의 기술력과 첨단성을 지닌 과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는 R&D는 이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견기업 스스로 선택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협력 R&D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R&D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과제에 대하여는 사전 선발에 의한 지원이 아닌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 사후적 평가는 필요하다.

**차등의결권 지원:** 높은 수준에 오른 중견기업(예, 월드클래스 300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게는 프로그램형 지원보다는 제도완화형 지원이 효과적이다. 그 중의 하나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기업이 의결권을 달리 하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및 혁신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를 세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 주식의 양도권을 제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복수의 결권을 가진 보통주에 대하여는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시에는 1주 1표인 보통주로 전환시키면 된다.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임 운 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제조업 경쟁력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의 불투명성

- 이항구 박사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견제조업체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제외하면 성장이 정체 혹은 지체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일부 기업에 영업이익률과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 필요
- 2017년에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라지만 반도체 착시현상은 아닌지 의문시됨. 한국은행에 의하면 작년 재무상태 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2%라고 함(11월4일 한국은행). 반면 재무상태가 좋은 상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작년과 같은 8.3% 수준. 재무상태 상·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5%p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영업이익률 격차는 3년 연속 확대되고 있음. 작년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사상 최대였으나 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은 3.9%로 평균에 한참 못 미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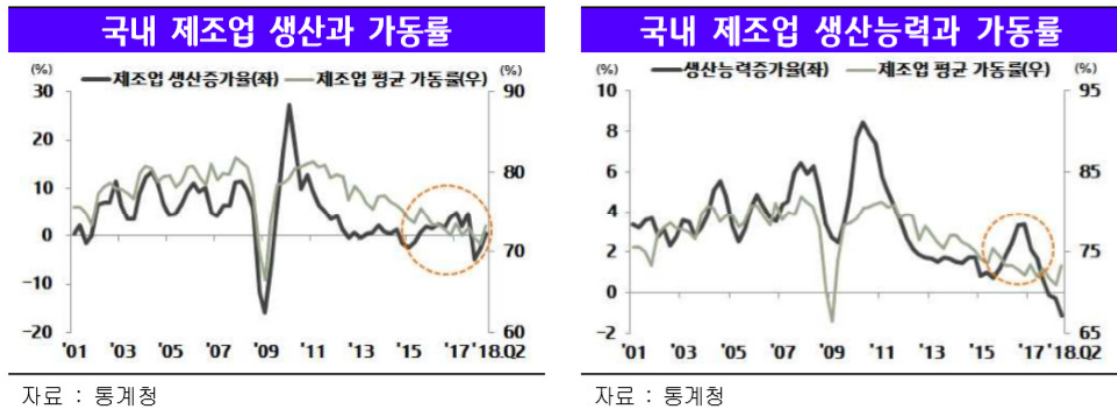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위 25%	-1.5%	-1.5%	-2.2%
상위 25%	8.0%	8.3%	8.3%
격차	9.5%p	9.8%p	10.5%p

\*출처: 한국은행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오히려 증가 추세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비중 감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고용은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예컨대, 과거 일학습병행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의 효과인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감소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인지(제조업 부진), 자동화 결과인지 등등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
- 국내 제조업 가동률의 양면성: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1) 생산감소(분자가 줄어드는 경우), 2) 생산능력 개선(분모가 늘어나는 경우) 이라는 상반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 언론은 가동률 하락을 기업의 생산감소로만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의 생산이 유지되어도 설비투자로 인해 생산능력이 개선될 경우에도 평균가동률은 하락하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 <표 2>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역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생산능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특히 2016-17년 반도체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생산능력 개선은 생산증가 효과를 상쇄하면서 가동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반도체 생산능력지수('15=100): 78.4('13) → 85.2('14) → 100.0('15) → 118.2('16) → 131.1('17)

〈표 2〉 국내제조업 생산/능력과 가동률



- 전속거래구조의 폐해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일까? 건설산업의 '시공참여제도 폐지'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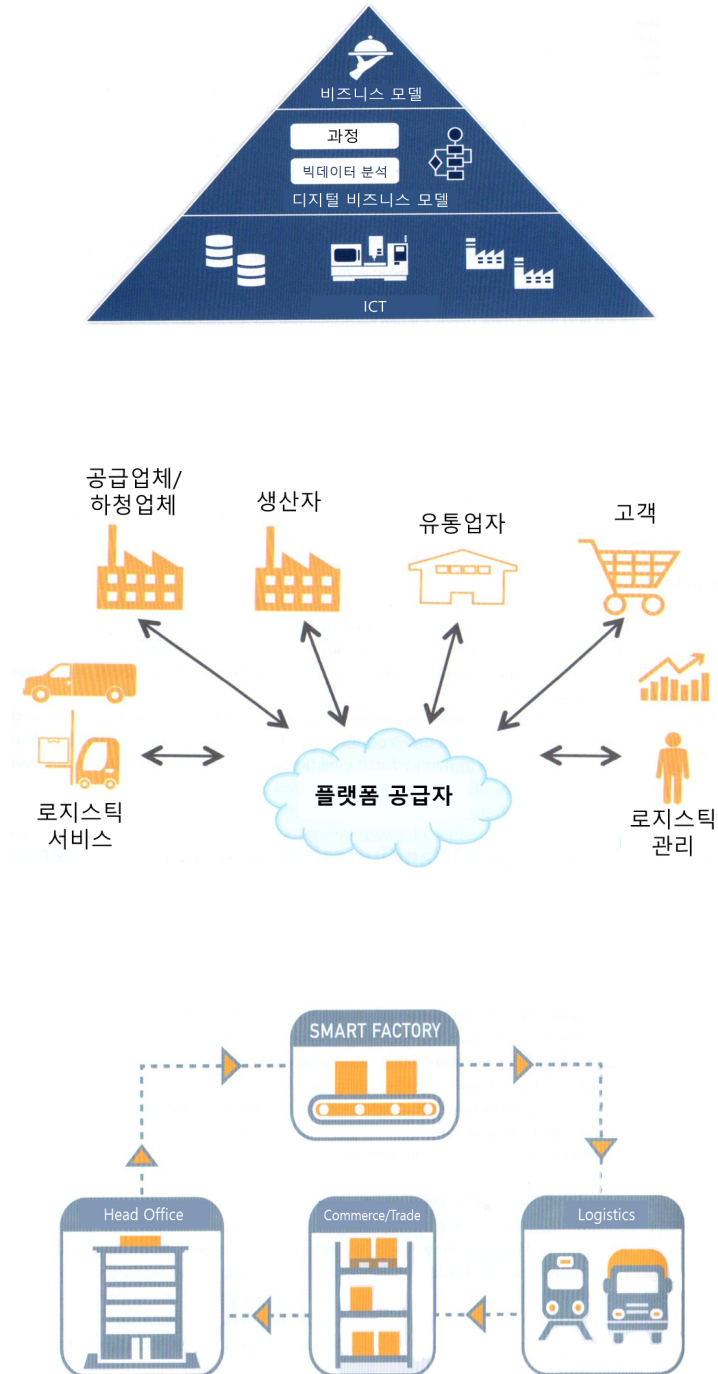
#### □ 제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산업과 노동의 디지털화

Q. 이항구 박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중 하나인 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 팩토리 사업과의 연관)전략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아직도 자동화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 Digitation, Digit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의 구분조차 없는 추진전략
- 디지털전환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동화 논의에 집중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넌센스
-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인적자본 양성(data scientist 뿐만 아니라 기능직 노동자 양성 및 향상훈련), 고용창출과 관련된 전반적 계획이 부재. cf. 독일의 산업 4.0 프로젝트의 교훈

- 국가-기업-연구소 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성과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부재

[그림 1]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산업의 디지털화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조 영 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전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큰 도전에 직면

- 4차 산업혁명, 新기후체제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급변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적극 대응

\* (美) America First, Rust-Belt 부활, (獨)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日) Society 5.0, Connected Industries, (中)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 그러나, 우리는 주력산업 전반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뒤처질 우려

-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

\* 설비투자(% , 전년동월대비) : ('18.3)0.1 → ('18.5)△3.5 → (7)△10.1 → (9)△19.3

\* 제조업 가동율(%) : ('09) 74.4 → ('11) 80.5 → ('13) 76.5 → ('15) 74.4 → ('17) 72.6

\* 제조업 취업자수(만명, 전년동월대비) : ('18.3)1.5 → (5)△7.9 → (7)△12.7 → (9)△4.2

- 중국의 추격에 따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역전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도 하락

\* 한-중 점유율 역전 : ('03)철강, 정유 → ('04)석유화학 → ('09)자동차조선 → ('14)스마트폰

\* 글로벌 산업경쟁력 순위(UNIDO, '13→'15) : 韓 4→5위, 中 7→4위

□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글로벌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

## 2. 제조업 고도화 전략 추진방향

□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추격 성장전략(Fast-follower)으로 성장과 고용을 견인

\* 경공업(1960) → 중화학공업(1970~80) → IT산업(1990~)으로 주력산업 육성

○ 그러나 현재 대기업 중심 양적 성장의 한계, 기업 생태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의존적 거래관계와 기업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화

\* 대기업 매출의존도(%), '16, 중소중견 실태조사) : 중소 84, 중견 78

○ 원가중심 Catch-up 전략으로 인해 중저부가가치 제품 중심 생산 지속, 제조업 전반의 공정혁신 미흡으로 생산성 저하

\* '17년까지 전체 제조기업중 7.2%에 스마트공장 보급(5,003개), 보급수준도 기초단계에 집중(76.4%)

□ 혁신 선도국가(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전반의 활력 회복과 고도화 추진 필요

○ 우선,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도출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❶내연차 → 전기차수소차자율차 ❷전자 → IoT가전 ❸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과 같이 새로 등장한 산업부문은 규제혁신, 사업화 지원,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❶바이오·헬스 : 제조 → 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❷에너지신산업 : 보급 → 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

□ 아울러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센서, SW, 로봇 등 제조 혁신 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이 필요



### 3.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2월「중견기업 비전 2280」정책을 마련하여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의 성장촉진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정책금융 확대, 제도개선 등을 추진
    - \* '18년 WC300기업 41개, 수출도약기업 99개, 월드챔프기업 178개 선정·지원
    - \* '18.3월, 총 2.5조원 규모의 강소중견기업 특별자금 출시(산업은행)
- 그러나 아직까지 성장사다리 미흡 등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역동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 보호위주의 기업정책, 기업규모 중심의 분절적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시스템 열악
    - \* 중소→중견 성장 기업수: ('15)12, ('16)7 / 중견→중소 회귀 기업수: ('15)23, ('16)23
    - \* '90년대 이후 창업기업 중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4개뿐
  - '창업·벤처 → 중소 → 중견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사이클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기업생태계 조성할 필요
- 앞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독립형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 업종별 창업 성공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의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반을 강화
    - \* 반도체 퇴직인력 창업, 「청년 Star Fabless」 등 시범사업 추진 (반도체협회)
    - \* 대기업의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R&D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앵커기업 집중 육성
    - \* 월드클래스 300 2단계 사업 추진 ('19년 예타, 정부 7,900억원)
  - 산업부-중기부간 정책 연계 강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성장사다리 강화
    - \* 예) 월드클래스 300(산업부) 지원시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성공기업 비중확대
    - \*\* 예) [일자리] 내일채움공제·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 [혁신] 신기술인증(NET) 요건 개선, 중견기업 사업 전환 특례 강화, [융합]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 등

memo

## memo

memo

## memo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